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지니어스 벨리버튼
수상내역	은상
작가	길혜연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p>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 열등감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타인을 이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그랬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좋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자, 운이 좋은 자에 의해 좌절된다.</p> <p>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는 이미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p>

<단편 시나리오>

지니어스 벨리버튼

길혜연

주제

갈망하고, 도전하기. 포기 않기. 정해진 운명이란 없다.

작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 열등감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타인을 이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그랬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좋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자, 운이 좋은 자에 의해 좌절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는 이미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등장인물

천제영(18/女) 사람들은 제영에게 독하다고 한다. 목표를 향한 노력과 열정만큼은 1등이나 결과는 언제나 2등이다. 인생은 마치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연과 조연. 그리고 제영은 조연이다. 운이 좋은 주연 앞에서는 2등이 되고 마는 조연. 살짝 올라간 눈 꼬리, 야무진 입매, 굳은 의지. 제영은 주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몽상가적 기질이 있고 조금 소심하다.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3반의 정우를 좋아 한다.

임진이(18/女) 멍하고 생각 없는 듯하지만, 언제나 운이 따른다. 둥근 안경을 쓰고 있고,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눈치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다. 명랑하고 순수한 성격.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크게 없지만 언제나 잘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진이의 결과는 언제나 좋다. 결국 쟁취한다.

장민지(18/女) 편하게 살자가 좌우명인 아이. 털털한 단발머리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던가, 하는 중성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꽃을 좋아하는 아이

다. 남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에게서는 중요한 일. 사람들을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로 나눈 제영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남 일에 참견하곤 하지만 귀찮게 구는 성격은 아니다. 털털한 성격이다 보니 어쩔 때는 조금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정우(18/男) 진이를 좋아한다. 키도 훗칠하고 얼굴도 곱상해서 인기가 꽤 있다. 매너도 좋고, 그야말로 잘난 남자다. 진이를 좋아해서 제영에게 진이와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제영에게 고마워한다. 주특기는 꽃미소.

### 줄거리

제영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한다. 인간은 세 분류로 나뉜다. 마치 드라마처럼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언제나 천운이 따르는 주인공. 주인공은 결국 원하는 바를 쟁취한다. 2인자인 조연은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똥똥 뭉쳐있다. 언제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그저 그렇다. 좋아하는 정우 앞에서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미소도 지어가며 노력했는데 정우는 제영을 봐주지 않는다. 그 아이가 보는 사람은 진이다. 임진이. 수업시간에는 만날 자면서 성적은 잘 나오고 별로 관심 없지만 언제나 관심을 받는다. 진이와 잘 되게 이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제영은 배가 아프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똥똥 뭉친 자신이 싫다. 주인공이 될 운명은 애초부터 정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천재적인 운빨로 천재적인 징표를 지니고 태어난 주인공의 운명. 제영은 진이가 정우를 만나러 가기 전에, 진이에게 변비약을 넣은 음료수를 먹이기로 결심한다. 투기를 부려 남을 망치는 건 악역, 조연의 전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속마음을 터놓을 곳도 없어 다이어리에 혼자 풀어왔는데, 다이어리마저 잃어버렸다. 그리고 과학실에서 제영은 자신의 다이어리를 읽고 있는 민지를 본다. 민지는 엑스트라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은 없고, 학교 인원수에 맞춰 채워 넣은 아이 같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이름. 되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민지는 제영에게 정말로 진이에게 변비약이 든 약을 먹일 거냐고 묻는다. 제영은 망설이지만 어차피 주인공이 못 될 바에야 악역으로라도 원하는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제영은 알게 된다. 여태껏 자신은 운명에 저항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 왔다는 것을. 제영은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될 것이다.

## S#1 학교 화단, 낮

제비꽃, 프리물라, 채송화가 심어져 있는 화단. 화단 위로 흩뿌려지는 물방울들.

## S#2 학교 옥상, 낮

아무도 없는 옥상. 제영, 옥상 난간에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 축구를 하고 있는 남학생들,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여학생들이 보인다. 제영, 그 중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남녀를 유심히 본다. 진이와 정우다. 제영 한숨을 쉬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다. 잠시 고개를 젖히고 있다가 목을 돌리는 제영.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한다. 신발을 벗고 옥상 난간 위로 올라가는 제영. 마치 다이빙을 하듯 팔을 올려 귀 뒤로 붙이고 심호흡을 한 후 떨어진 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떨어지는 제영의 모습. 눈을 감고 있는 제영의 얼굴 클로즈업.

제영(N) 지니어스 벨리버튼.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천재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천재가 될 운명을 타고 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될 운명을 타고 나는 사람이 있다.

## S#3 우주

떨어지던 제영,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속으로 빠진다. 물속에서 눈을 뜨자 주위에 하얀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헤엄치듯 허우적대는 제영. 숨을 참는 듯 불이 부풀어 올랐다. 몸은 가볍게 붕 떠오른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검은 물속은 곧 우주로 변한다. 많은 별들 중 하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다가 폭발한다.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사방에 불빛들이 반짝이며 흩어진다.

제영, 허공에서 팔을 휘저으며 별의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간다. 밝은 빛이 가득하다. 점점 빛이 제영을 집어 삼키고 제영 눈부신 듯 팔로 눈을 가린다. 그리고 둥글게 몸을 웅크린다. 하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 빛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좀 더, 좀 더.”, “나온다.” 와 같은 말들이다.

## S#4 수술실 안, 낮

아기의 모습을 한 제영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나오고 의사가 아기를 받는다. 힘

차게 올려대는 제영.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아빠가 시야에 들어온다.

제영(V.O) 열등감으로 똥똥 뭉친 2인자, 조연의 탄생이다.

가위의 날이 불빛에 반짝이고, 탯줄이 잘리는 소리와 동시에 암전.

#### S#5 검은 방 안

검은 방 안, 빨간색 벨벳 커튼이 뒤쪽에 있고, 그 앞으로 구식 안테나 텔레비전이 있다. 텔레비전이 켜지며 서서히 선명해진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온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진이와 정우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안경을 쓰고 평소보다 멍해 보이는 진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고 입술에는 반짝거리는 립글로즈를 발랐다. 진이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진우. 머리를 왁스로 올리고 수트를 입고 있다.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진이, 정우 드라마 속에서 오바스럽게 서로를 껴안는다. 그 둘을 멀리서 바라보는 제영. 텔레비전 화면 속 제영의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빨간 립스틱에 구불거리는 파마머리를 하고 있는 제영. 눈물을 흘리며 질투심 가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보고 있다.

진이와 제영이 차례로 클로즈업 된다. 텔레비전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글자 <지니어스 벨리버튼> 타이틀 인.

#### S#6 학교 운동장 나무 아래, 낮

미소를 짓고 있는 정우의 얼굴 페이드 인. 머리띠를 한 제영, 열은 분홍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자꾸만 깨문다. 정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땅만 보고 있다.

정우 (제영과 눈을 맞추려 고개를 숙이며) 알겠지, 응?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이어 주기야.

제영 .....

정우 어? (실실 웃으며) 어? 알겠지?

정우, 제영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미소 짓는다. 제영 흠칫거리며 입술을 깨문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눈동자.

제영 (고개를 들고 애써 태연하게) 알겠어.

#### S#7 학교 복도, 낮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란스러운 복도를 힘없이 걸어가는 제영의 뒷모습. 가다가 우뚝 멈추어 선다. 손등으로 입술에 바른 립스틱을 지운다. 제영의 어깨를 툭 치는 손. 진이다. 진이를 돌아보는 제영. 애써 입꼬리를 올린다.

진이           (쾌활하게) 어디 갔다 와?  
 제영           그냥... 밖에...  
 진이           (제영의 팔짱을 끼며)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공부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냐?  
 제영           뭐래..... (고개를 돌리고 중얼거리듯) 공부 때문이겠냐.  
 진이           영?  
 제영           아니야.(억지웃음)  
 진이           (팔짱을 풀고 기지개를 키며) 으~ (하품) 맞다. 성적 나왔더라.

교실로 먼저 들어가는 진이. 제영, 건다가 다시 우뚝 선다. 교실 안 아이들의 모습을 둘러 본다. 떠드는 아이들, 잠을 자는 아이들, 공부 하는 아이들,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아이들. 눈을 감고 한숨을 쉰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제영.

#### S#8 제영의 교실 안, 낮

소란스러운 교실 안. 성적표를 보고 있는 제영. 국어, 영어, 수학, 사회·문화 순으로 등급이 적혀 있다.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은 없다. 제영, 고개를 돌려 진이를 본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진이. 둥근 안경이 눈 밑으로 내려와 있어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활짝 웃는 얼굴도 어리숙 해 보인다. 진이, 제영과 눈이 마주치자 제영에게로 다가온다.

진이           천제, 천제! 오늘 애들이랑 팔빙수 먹으러 갈건 데. 너도 갈래?  
 제영           (아니꼬운 듯) 팔빙수?  
 진이           (진이의 성적표를 보며) 어! 시험 잘 봤구나?  
 제영           (성적표를 감추며) 아닌데? ...넌 잘 봤어?  
 진이           (머리를 긁적이며) 에이...나야 뭐 똑같지...이번엔 운이 좋았어! 쯔든. 시험은 끝났으니까. 가자, 팔빙수 먹으러!  
 제영           나 팔빙수 싫어하잖아. 니들끼리 먹어. 그리구 나 약속 있어.  
 진이           뭔 약속? 너 요즘 진짜 바빠다? (제영 옆구리를 지르며) 너 남친 생긴 거 아냐?  
 제영           (귀찮은 듯) 아니야, 무슨 남친.  
 진이           솔직히 말해봐. (제영을 툭툭 치며) 진짜 아냐?  
 제영           아, 아니라니까.

신경질 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책상 위로 엮드리는 제영. 심란하다. 진이 멀뚱히 제영 앞에 서서 자꾸만 제영에게 장난을 건다. 제영, 다시 벌떡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데 교실 문 옆에 서 있는 정우가 보인다. 정우 밖에서 제영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시선은 진이를 향해 있다. 제영 정우의 시선 따라 진이를 돌아본다.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이. 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정우와,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진이 사이에 제영,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그때, 민지 제영에게 다가와 눈치 없이 설문지를 내민다.

제영 (조금 신경질) 이게 뭐야?

민지 이거 설문지인데.. 우리 학교 화단에 심을 꽃 이 중에서 골라주면 돼. (실실 웃으며 머리 긁적)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게 내가 직접...

제영, 민지 말 무시하고 교실 자리로 가 앉는다. 머쓱한 듯 입맛을 켜켜 다시는 민지. 제영, 진이에게 말거는 진우를 돌아보다 책상 위로 엮드린다.

#### S#9 검은 방 안<몽타주>

방 한가운데, 드라마가 나오는 구식 텔레비전. 텔레비전 화면 속 웃고 있는 진이의 모습. 수업시간에 엮드려 자는 진이, 1등급을 받은 성적표를 들고 있는 진이, 텅텅하게 웃는 진이 뒤로 바라보고 있는 정우.

제영(V.O) 평범한 듯 보이지만, 언제나 운이 좋아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주인공.

채널이 바뀌고, 제영이 나온다. 진이의 주변에 모여 있는 친구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진이는 맨 앞,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가고 있다. 화면의 맨 끝에서 반쯤 잘린 제영의 모습. 화면 바뀌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제영. 교과서 위로 떨어지는 코피.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들고 있는 제영.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제영.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진다. 나무 뒤에 숨어 정우를 바라보는 제영. 하지만 정우는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다. 시선 따라가 보니 웃긴 표정을 짓고 있는 진이가 있다.

## S#10 제영의 방 안, 밤

방 안에서 쿠션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던지는 제영. 마구 소리 지르다 침대 위로 푹 엎어지는 모습. 제영,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앉는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심호흡을 한다. 밖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제영(N)      버리자. 이 열등감, 질투심... 모두 버리는 거다. 그래, 바꾸자. 독기 어린 성격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

집중하려는 데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제영            (눈을 뜨며) 아 엄마! 소리 좀 줄여!

줄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 제영 투덜거리며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간다.

## S#11 거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엄마. 텔레비전 속 단발머리를 하고 눈 옆에 점이 찍힌 여자가 표독스럽게 눈을 뜨고 찌씩대고 있다.

여자            (소리) 부서 버릴 거야... 너! 꼭 부서버릴 거라구!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드는 여자. 화면 속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는 제영.

제영(N)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 결국 주인공은 쟁취하고, 주인공을 질투하는 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나이다.

제영, 고개를 푹 숙인다.

<인서트> 제영의 방 안, 밤

책상 위 제영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

제영: 내일 어디 좀 가자.

진이: 어디?

제영: 그냥 카페.

진이: 둘이서?

‘3반 정우랑 같이.’ 라는 말은 보내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쓰여 있다.



휴대폰 옆으로, 제영의 다이어리. “인간은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로 나뉘진다...”와 “주인공이 되고 싶다...” 같은 일기가 적혀 있고 맨 마지막으로 “네가 싫다. 너를 싫어하는 나도 싫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S#12 학교 운동장,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제영. 진이가 달려와 제영에게 어깨동무를 한다.

진이           (애교 섞인) 천제~  
제영           야,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진이           (싱글벙글) 뭐 어때.  
제영           천재, 천재. 이상하잖아... 진짜 천재도 아닌데.  
진이           진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어. 너만큼 노력하는 애가 어딴냐? 그니까 천재지.  
제영(N)       그 반대겠지..

제영과 진이, 화단 앞을 지나간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민지. 한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휘파람을 불고 있다.

진이           그나저나, 3반 정우랑 같이 만나는 거야? 난 개 잘 모르는데.....  
제영           (심드렁하게) 상관없어. 그냥 만나기나 해.  
진이           정우, 이정우 말하는 거지? 그... 곱상하게 생긴 애.  
제영           어.

진이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어느 남학생. 한 손을 들어 진이에게 인사해 보인다.

진이           (어색하게) 어..어.. 안녕..  
제영           누구야?  
진이           그냥... 아는 애.

제영, 학교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는 남학생을 물끄러미 보다 그 옆의 정우를 본다. 옆에서 걸어가던 진이 갑자기 악,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는데 제영이 재빨리 진이의 팔을 잡는다.

진이           (바보같이 웃으며) 아... 고마워... 클 날 뻘했네.

제영(N)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S#13 과학실, 낮 수업시간

책상 위 비커와 현미경이 있고, 칠판 앞, PPT화면이 띄워져 있다. 6개의 긴 책상, 아이들이 분단별로 앉아 있다. 모두 지치고 지루한 표정이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너희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다. (한쪽을 가리키며) 어이, 거기 집 중해.

맨 끝 분단에 앉아 있는 제영, 수업은 듣지 않고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끼적이고 있다.

제영(N)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조연들의 최후는 어땠더라.... 포기하고 잘 살게 되었던가.. 아니지.. 죽었었...나..

제영 볼펜으로 마구 선을 긋는다. 새까맣게 변한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 옆드리는 제영.

<몽타주> 검은 방(꿈)

텔레비전 화면 속 오피스 룩을 입고 당차게 걸어가는 진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제영. 진이의 비서가 되어 진이에게 스케줄을 말해준다. 화면이 바뀌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온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 제영.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물병에 독약을 넣는다. 그 물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진이. 칼을 찬 중세 시대 왕족 옷을 입은 정우가 등장해 쓰러진 진이에게 키스하려 한다.

제영, 벌떡 일어난다. 꿈이다. 과학실 안. 주위를 둘러보니 수업이 끝나고 모두 나가고 아무도 없다. 제영, 손등으로 침을 닦는다. 시계를 보자 점심시간이다. 과학실 밖으로 나가는 제영. 복도 끝 진이와 정우가 보인다. 진이 멀리서 제영을 발견하고 달려온다.

진이      제영! (정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 재랑 얘기했어. 이따 만나자는 데, 2동 주민센터 앞에 새로 생긴 카페 알지? 거기 빙수 맛있구, 빙수 먹자고 하는데 너 빙수 싫어하잖아. 딴 거 먹자고 하려 하는데 뭐 먹자고 할까? 너 뭐 먹고 싶어?

제영, 멀리서 진이를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본다. 정우, 어색하게 진이를 기다리며 서 있다.

진이 (제영의 팔을 끌어당기며) 네가 가서 말해주라.. 나 재랑 어색하구나..  
 제영 (끌려가다가 진이의 손을 뿌리치며) 아...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맘대로 해.  
 진이 (눈치 없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해~ 나 진짜 남자애들이랑 대화 잘 못한단 말야. 남자애들이랑 있으면 괜히 떨리고, 말도 더듬고..... 아 난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있잖아 내가 예전에는-  
 제영 -그냥 재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해.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냐. 나 점심 안 먹을래. 먹구 와.

제영, 뒤돌아 교실로 들어간다.

S#14 제영의 교실 안, 낮

자리에 가 가방을 뒤지는 제영. 가방에서 약통을 꺼낸다. 변비약, 하루 2회 복용이라고 적혀 있는 약통.

<몽타주> 제영의 교실 안(상상) → 카페

약을 물에 탄 후 진이에게 물통을 주는 제영. 생각 없이 싱글병글 물을 받아 마시는 진이. 카페에서 정우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던 진이. 변비약이 신호가 왔는지 땀을 뺄뺄 흘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방구를 끼며 화장실로 달려간다. 당황한 정우의 얼굴, 고개 돌려 씨익 웃는 제영의 얼굴 클로즈 업.

제영,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약통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한숨을 크게 쉬며 자리에 털썩 앉는 제영. 생각이 많아지니 피곤하다.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친구를 해하려는 자신이 한심해서 머리를 쥐어뜯는다. 그러다 문득 다이어리가 없음을 알게 되고 책상과 가방을 뒤지는 제영. 그제야 과학실에 놓고 왔음을 알게 된다. 제영, 일어나 다시 과학실로 향한다.

S#15 과학실, 낮

아무도 없는 과학실. 아까와 달리 어쩐지 좀 더 으스스한 느낌이 난다. 선반에 진

열 된 해부 개구리들, 벽에 걸린 해골 전신사진. 제영은 빨리 다이어리를 찾아 나가려는 데 도통 보이지 않는다. 그 때 맨 뒷줄 왼쪽 구석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 천천히 다가가보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어떤 아이의 머리통이 보인다. 그 아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돌아 제영을 올려다보고.. 다크 서클이 가득한 음침한 얼굴. 민지다.

민지 (제영을 보며) 아아악!

제영 (뒤늦게) 까악!

잠시 침묵. 정지화면처럼 꼼짝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민지와 제영. 제영, 민지의 손에 들려 있는 다이어리를 보게 된다.

제영 (다이어리를 뺏으며) 뭐...뭐야! 너, 여기서 남의 다이어리는 왜 읽고 있는거야!

민지 하... 놀래라. (머리 굽적이며 일어나)

제영 (어이없어) 너 뭐냐구. 함부로 왜 남의 일기 훑쳐보는 거야? 어?

민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애들은 없고... 나가려는 데 (제영 손에 들린 일기장 가리키며) 이게 여기 떨어져 있길래... 난 강 궁금하니까! 그 뭐냐... 겹겹데기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소설 뭐시기 그런 건 줄 알았지...

제영 뭐..뭐? 하...

제영,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한다. 평소 생각을 다 적어둔 일기장인데, 속마음 다 들킨 것 같아 분하고 짜증난다. 발을 쿵쿵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휘젓다 이내 털썩 쪼그려 앉는다.

민지 (제영을 내려다보며)...아니.. 난.. 그..

제영 (중얼거리듯) 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냐구... (울먹)

잠시 정적. 민지,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청얼거리는 제영을 뺨뺨하게 내려다보며 코를 훌쩍인다.

민지 (조심스레) 근데... 나는... 뭐야?

제영 (고개를 천천히 들며) 뭐?

민지 (눈치 없게) 아니... 그, 네 일기장에 나온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그거 중에 나는... 뭐냐구..

제영 .....

민지 (바보같이 웃으며) 주연인가..? 헤헤..

제영, 바보처럼 웃는 민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걱정이나 고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얼굴이다.

<몽타주> 낫

제영(V.O) 장민지. 존재감 제로. 열정도, 운도 그다지 없어 보이는... 이 아이는 엑스트라다.

제영의 교실 안

맨 뒷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민지. 선생님, 신경 쓰지 않는다.

운동장

진이와 그 외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구 연습을 하는 제영. 그 뒤로 배경처럼 보이는 민지. 혼자서 해맑게 배구공을 던지며 연습중이다.

운동장, 나무 아래

진이와 확실하게 이어달라고 부탁하는 정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제영. 그 뒤로 배경처럼 있던 민지. 클로즈업 되며, 혼자 유유히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

제영, 기대하는 눈빛으로 제영을 바라보는 민지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제영 (애써 태연하게 일어서며) 있지, 이 일기에 적힌 내용 모두 잊어줘.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민지 (무시하며) 궁금한 게 있어.

제영 ...

민지 그 운명이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그냥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냐?

제영 (한심한 듯) 넌 내 일기 다 봐놓고도 이해를 못하니. 됐구, 그냥 잊어버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민지 (또 무시하며) 주인공이니 조연이니... 그런 거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제영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그러.니.까... 잊어 버리라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구.

제영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뒤돌아 과학실을 나가려 한다.

민지            그 약, 탈거야?

제영, 다시 뒤돌아 민지를 본다. 민지를 힘없이 바라본다.

S# 16 운동장 벤치, 낮

제영, 민지 화단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제영, 텅 빈 눈으로 축구를 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본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연다.

제영            지니어스 벨리버튼.

민지            (고개를 갸웃하며) 지..니어스 벨리버튼?

제영            (운동장을 바라보며) 태어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세상에 나오  
고 땀줄이 잘리고, 일종의 낙인과도 같은 배꼽이 만들어 질 때 정해  
진 거야. 천재가 될 운명, 주인공이 될 운명.

민지            (눈치 없이) 무슨 운명?

제영            (한숨) 주인공은 언제나 운이 따르더라구. 과정이 어떻던지, 결국엔  
쟁취하게 되는 운명을 가진 거지... 그리고 그 주인공을 질투하고 시  
기하는 인물은 조연이야. 누구보다도 목표를 향해 가고 싶어 하지  
만,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거지 뭐.. (고개를 떨구며) 조연이니까..

민지            오...와... 너 상상력 되게 좋다.

제영            독한 마음먹고 목표 이루려는 마음도 없고... 그저 화면 속에 얼굴  
비치는 정도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지...

민지            개넌.. 엑스트라?

제영            (고개를 끄덕이며) 응.

민지            우리 반에.. 누가 있으려나..

제영, 말없이 민지를 쳐다본다. 민지 허공을 보며 생각하다가 제영의 시선을 느끼  
고는 흠칫 놀란다.

민지            (의외라는 듯이) 설마.. 나야?

제영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마.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생각해.

민지            (입 삐죽) 엑스트라였다니.. (다시 아무렇지 않아하며) 에이 뭐. 상관  
없어. 그래도 나 목표도 없고, 대충대충 살아가지는 않아.

민지, 일어나 화단 쪽으로 걸어간다. 그런 민지를 돌아보는 제영.

민지 (화단을 가리키며) 여기 이 화단. 내가 만날 물주고, 정리 한다구.  
 (제영에게 다시 달려와) 원래는 화단 가꾸기 당번이 있었거든. 미진  
 이 알지? 근데 개가 영, 하지를 앓는 거야. 지켜보다가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부터 가꾸게 된 거지. 내가 가꾸기 전까  
 지만해도 꽃들 (꽃들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 이거 다 시들고 말라  
 서 축 쳐져있고 막 그랬다. (사이) 근데 내가 살린 거야. 뭐... 사람  
 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별로 상관은 없어.

민지, 제영의 옆으로 와 앉는다. 제영 민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의 시선은 화단  
 에 고정되어 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꽃들...

제영(N) 애..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애였나..

제영 시선, 화단으로 옮겨간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민지 나도 꿈 있어. 생각 없이 바탕화면처럼 살아가는 건 아냐. 음... (조  
 금 부끄러워하며) 꽃을 가꾸다 보니까 어딜 가든 꽃만 보이더라구...  
 근데 의외로 꽃이 찾기 어렵다 이거야.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자  
 랄 리가 있겠어? 그리고 난 생각했지. 꽃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  
 꽃 심고, 물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더 예쁜 세상 만들 수 있는  
 데 말야...

제영, 민지의 말에 어이없어 입을 벌리고 멍하니 민지를 본다.

민지 (제영을 보며) 첨엔 미진이 보면서 아, 내가 화단 가꿔보고 싶다, 생  
 각하면서 질투도 하고 ... 그랬는데 어찌다보니 기회가 오더라고.  
 잡았고, 쟁취했다. 이거지. 그니까... 난... 주연 아닌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제영 힘없이 미소짓다 이내 피식하고 웃음이 새  
 어 나온다. 눈을 반짝이고 있는 민지를 빤히 들여다본다.

제영 (중얼) 잡았고... 쟁취한다...

민지 넌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제영 (고개를 숙이며) ... ... 모르겠어...

민지 (옆에 놓인 제영 일기장 들어서) 6월 13일, 드디어 오늘이다. 정우에  
 게 진이를 소개시켜줘야 한다. 한번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알지 못하겠지.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언젠가는 고백하고 싶다. 정우에-

제영 (화들짝 놀라) -읽지마!

제영, 민지에게서 일기장을 뺏으려 한다. 민지는 팔을 높게 쳐들며 킁킁대고, 제영은 일기장을 뺏으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자 민지, 일기장으로 제영의 머리를 탁 친다.

민지 (흔계하듯)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란 말야. 노력하는 자는 운 좋은 자를 이긴다. 몰라?

민지를 보는 제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민지, 벌떡 일어나 화단으로 간다. 화단에 떨어진 꽃잎 두 개를 찾아 주워서, 제영에게로 달려가 꽃잎 하나를 손에 쥐여 준다. 남은 꽃잎은 다른 손에 숨긴다.

민지 난 항상 결정을 못 내리는 일이 생기거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을 때 꽃잎을 허공에 던졌다가 받거든. 꽃잎이 손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우는 표정), 꽃잎이 손에 딱! 떨어지면 (활짝 웃는 얼굴) 밝음! 언제나 오케이! 자, 너도 해봐.

제영, 떨떠름한 표정으로 꽃잎을 던지려 한다.

민지 눈 감아야해! 내가 뜨라고 할 때까지 뜨면 안 돼!

민지의 말에 눈을 감고 꽃잎을 위로 던지는 제영. 꽃잎, 위로 올라 하늘하늘 떨어진다. 제영의 손바닥을 지나쳐 바람에 날아가는 꽃잎.

제영 이제 눈 떠도 돼?

민지 재빨리 한쪽 손에 쥐고 있던 다른 꽃잎을 제영의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민지 응! 떠!

제영, 손바닥 위에 놓인 꽃잎을 확인하곤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진다. 제영 민지를 본다. 민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S#17 제영의 교실 안, 오후

자리에 앉아 있는 제영.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교실로 들어오는 진이. 진이의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다.

진이           (명랑하게) 천제~ 오늘 말이야... 생각해 봤는데 정우랑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알잖아... 나 숫기 없는 거.

제영, 종알거리는 진이의 손에 들린 물병을 바라본다. 물을 마시는 진이. 줄어드는 물 클로즈업. 제영 침을 꿀꺽 삼키고 뒤를 돌아본다. 제영을 보고 있는 민지. 눈을 크게 뜨며 의미심장한 미소 짓는다.

제영           (머뭇거리며) 진이야..

진이           (물마시며) 응?

제영           (자리에서 일어나) .... 나 할 말이 있어.

S#18 복도, 오후 쉬는 시간

복도를 달리는 제영. 조금 진지한 표정이다. 3반 앞에 다다른 제영. 앉아서 다른 남자 아이들과 장난치는 정우의 모습이 보인다.

<몽타주> 검은 방

텔레비전 화면 속 제영. 공부를 하다 코피를 쏟는 제영, 휴지로 코를 막고 다시 공부에 열중한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진이 옆으로 열심히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제영.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밤에 공원에서 홀라후프를 하고 줄넘기를 하는 제영의 모습. 열정적이다.

제영(V.O)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텔레비전 화면 흐려지다가 다른 채널로 바뀐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약통. 변비약, 하루 2회 복용이 적혀 있다.

S#19 3반 교실 앞

숨이 가빠 헉헉 대는 제영. 장난치고 있는 정우의 모습. 정우, 제영을 발견하고

웃어 보인다.

제영(N)      누구보다 원했기에, 노력했기에.

<몽타주> 제영의 교실 안

S#17의 상황.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영의 얼굴.

제영            나... 정우 좋아해. (미소) 정우랑... 잘되고 싶어.

제영에게 다가오는 정우. 그런 정우를 바라보는 제영의 옆모습.

제영(N)      지니어스 벨리버튼.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누구나 지니어스 한 삶을 살게 된다.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운명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미소 짓는 제영의 옆얼굴. 페이드 아웃.

S#20 검은 방 <몽타주>

텔레비전 화면 속 엄마의 자궁에서 웅크리고 있는 태아, 으앙,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나오고 탯줄이 잘린다. 걸음마를 하는 어린 제영. 학사모를 쓰고 초등학교 앞에서 졸업사진을 찍고 있는 제영.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제영. 정우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제영.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정우에게 고백하는 제영. 웃는 정우의 얼굴.

민지, 화단에 물을 주고 있고 진이, 등교 길에 인사하던 남학생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카메라 점점 뒤로 물러나며,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제영과 정우의 뒷모습. 풀 샷. 텔레비전 화면 점점 흐려지면서 나타나는 필기체 글자 <THE END>

-FIN